‘우울한 20대’ 취업시장 설 자리가 없다

광주 1만2000명 급감…전남 1000명 감소 11개월째 내리막길

광주 36시간 미만 ‘알바’ 5000명 줄고 가족종사자 3000명 늘어

호남통계청 6월 고용동향 발표

지난달 광주 20대 취업자가 전년보다 1만2000명 급감하며 석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여름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성 일자리’인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5000명 급감했다.

14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 지역 취업자수는 광주 75만명·전남 100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각각 5000명 감소, 1만1000명 증가했다.

광주 취업자 수는 지난 3월부터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오다 지난달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전남지역은 지난 3월 취업자가 1만명 늘어난 뒤 넉 달 연속 증가 추세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 취업자의 경우 광주는 석 달째, 전남은 11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지난달 광주 20대 취업자는 무려 1만2000명 줄었다. 코로나19 3차 유행이 극성했던 지난 11월(-1만3000명) 이후 가장 크게 감소한 수치다. 전남 20대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000명 감소했다.

지난달 광주에서는 50대와 6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 취업자가 줄었다. 20대(-1만2000명) 감소폭이 가장 심했고, 30대(-6000명), 40대(-2000명), 15~19세(-1000명) 등 순이었다. 1년 전보다 50대 취업자는 7000명, 60대는 9000명 증가했다.

전남은 60대 취업자가 2만명 늘었고, 50대(4000명), 15~19세(1000명) 연령대도 증가했다. 30대(-8000명), 40대(-5000명), 20대(-1000명)는 줄었다.

지난달부터 지역 대학들이 여름방학에 들어갔지만 광주지역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오히려 감소했다. 지난 4월 36시간 미만 취업자가 7만9000명이나 급감하고 5월(-2000명)에 이어 석 달째 줄고 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광주지역 취업자는 1년 전보다 무려 2만2000명 감소하는 등 10개월 연속 감소세다.

광주 청년들의 아르바이트 일자리난은 자영업자 감소 추세에서도 감지할 수 있다.

광주 자영업자는 15개월 연속 상승 곡선을 그리다 지난달 3000명 줄어들며 꺾였다.

살펴보면 광주에서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4000명 줄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1000명 늘었다. 무급가족종사자는 3000명 증가했다.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줄었다고 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난 것도 아니다.

지난달 광주에서 고용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근로자는 전년보다 3000명 줄었다.

덩달아 1년 이상 고용 계약을 맺는 상용근로자는 1만1000명 줄며 11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일급이나 일당을 받는 일용근로자는 광주에서 1만명이나 늘었다.

이달 초 본격화한 코로나19 4차 대유행 여파로 다음 달에는 숙박음식점업 등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다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방역조치 강화로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이 커지고 고용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걱정이 앞선다”며 정책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신용정보 한 곳에…광주은행 ‘금융비서’ 만나세요

지역은행 첫 마이데이터 본허가

개인 맞춤형 종합 ‘금융비서’ 역할을 할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지역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광주은행에서 만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연 정례회의에서 광주은행에 대한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본허가를 의결했다.

마이데이터는 통합신용정보조회를 기반으로 금융회사 등 여러 곳에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본인이 알기 쉽게 통합해 보여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를 이용해 고객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기능 제공이 가능하다.

광주은행은 지난 4월 마이데이터 사업 2차 심사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어 2차 신청 기업 중 가장 먼저 마이데이터 본허가 획득을 확정 지었다.

송종욱 은행장은 마이데이터 사업 시작부터 본허가 획득까지 모든 과정을 진두지휘했다.

이번 본허가로 광주은행은 지역민과 고객에 대한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

광주은행 스마트뱅킹 앱 이용자는 연말 안에 새로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만날 수 있다.

보유자산의 특성에 따라 현금·계좌, 투자, 대출, 소비, 보험, 연금 6개 항목으로 나눠진다. 다른 금융회사의 자산까지 한눈에 분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거래내역과 계좌 상세 조회까지 가능하게 된다.

단계적으로 추가 제공될 기능은 ▲마이데이터 달력 ▲수입·소비현황 조회 ▲부동산 시세조회 ▲은퇴자산설계 ▲금융정보·지역공공혜택·지역관광가이드 등 알림기능 ▲절세상품 추천 등이 있다.

송 행장은 “지방은행 최초로 마이데이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만큼 지역민과 고객님께 새로운 자산관리에 대한 금융경험과 편리한 금융생활을 제공할 수 있도록 완성도 높은 디지털 금융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핀테크 및 빅테크 기업의 금융산업 진출 등 치열해진 경쟁환경 속에서 지역 향토은행으로서의 지역 금융 발전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디지털 혁신을 선도해 나감으로써 지속가능한 100년 은행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에너지 절약 아파트에 포상금 14일 한국전력과 광주시는 에너지 절약 우수 아파트를 선발해 포상금 100만~최대 1200만원과 ‘절전 인센티브’를 주는 ‘저탄소 녹색아파트 조성사업 및 탄소중립 공동추진’ 업무협약을 맺었다. 최영성(오른쪽) 한전 영업본부장과 박남주 광주시 환경생태국장. 〈한전 제공〉

“물류비 5배 올라 수출할수록 손해”

광주·전남 기업 144곳 조사

광주·전남지역 기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한 물류대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당수 기업이 수출이 증가했음에도, 물류비용이 크게 올라 오히려 손해를 보는 등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14일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가 최근 광주·전남 144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입 물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상반기 대비 올 상반기 수출이 증가했다고 답변한 기업은 59%였다.

수출이 감소했다는 기업은 38.9%였다. 상대적으로 수출 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업들이 체감하는 수출입 물류비 부담은 심각한 수준이다. 물품과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지만, 현재 미주지역 수출을 위한 물류비용은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당 평균 800만원 정도다. 이는 기존 50만~100만원에 비해 10배 상당 증가한 것으로, 무역협회 측은 평균 5배 이상 물류비가 폭증했다고 설명했다.

기업들 93.8%는 작년 대비 수출입 물류비가 증가했다고 답했고, 수출단가에서 물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0~30%에 달한다는 응답도 26.4%나 됐다. 30%를 초과한다는 응답도 6.9%로 조사됐다.

통상적으로 중소기업의 수출 이익률이 10%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수익이 크게 훼손된 것이다. 수출입 물류비 인상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자사 부담으로 감수하고 있다는 응답은 44.1%로, 아예 수출 포기 상태라는 응답도 6.4%에 달했다.

지역 수출기업들은 운송비 보조금 지원(51.4%)과 선복확대(17.6%), 물류 최적화 컨설팅(16.2%), 운송비 저리 융자금 지원(6.3%) 등을 지원책으로 꼽았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수출이 회복해도 급등하는 물류비에 중소기업의 경영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수출물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264.81 (-6.57)
↑	코스닥	1044.98 (+1.67)
↓	금리(국고채 3년)	1.390 (-0.034)
↑	환율(USD)	1148.50 (+3.10)

연말까지 특별채무감면

광주신보

광주신용보증재단이 연말까지 ‘특별채무감면 캠페인’을 벌인다.

대상은 코로나19 장기화 피해를 입어 광주신보가 대신 채무를 변제한 고객이다.

연말까지 채무금액을 일시 상환하거나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면 기존 10% ~ 17%인 연체 이자율이 일정 조건에 따라 최저 2%까지 인하된다.

기초수급자, 장애인, 고령자, 장기입원자, 이재민, 한부모가족 등 사회취약계층은 연체이자가 전액 감면된다.

한편 광주신보는 장기 미상환 채무자 9명을 대상으로 지난 달 말 사흘에 걸쳐 ‘2021년 1차 재기교육’을 진행했다.

재기교육 이수자는 재도전지원특례보증 등의 지원 기회를 갖는다. 이 교육은 하반기 중 추가 진행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제조 기업 탄소중립 바우처

광주·전남중기청 기업 모집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지역 제조 소기업의 저탄소 경영전환을 위한 ‘2021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중 하나로, 올해 처음 추진된다. 제조 소기업을 대상으로 탄소 수준 진단 후 심층 컨설팅을 추진, 컨설팅 결과에 따라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 소기업으로 컨설팅 분야를 필수 신청해야 하며, 기술지원 분야는 지원한도 내에서 5개 프로그램 중 중복 신청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컨설팅 분야에서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1개, 기술지원 분야에서 시제품 제작, 친환경·저탄소 인증 및 시험 등 5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고탄소 배출업종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된 기업은 기업당 최고 5000만원 한도에서 바우처 발급금액의 90%를 지원받아 원하는 수행기관을 선택해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혁신바우처플랫폼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문화신협 예금 한시모집
특판시기 : 2021. 7. 5 ~ 7. 23 (3주), 한도소진시 판매 종료
유니온 정기예탁금 12개월 (세전 / 만기해지) 연 2.06%
❶ 신협ON뱅크 어플 다운로드 후 조합원 가입 ❷ 상품몰 → 유니온정기예탁금 ❸ 가입신청
파워 정기예탁금 18개월 (세전 / 만기해지) 연 2.0%
출자금 1인당 1,000만원까지 비과세
(광주 북구 및 광산구 거주민 가입 가능)
2020년도 출자금 배당률! 2.97%
출자금은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고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으며, 출자금 배당률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e-파란적금 36개월 2.0% (온뱅킹 전용상품) 세전 / 만기해지
유의사항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신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을 계약 하시는 경우 상품에 관한 중요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예탁금 및 적금은 신협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비과세종합저축 가능합니다.
•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 시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됩니다.
• 금융상품 관련 상담 및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신협 영업점 및 아래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흥본점 (광주 북구 문산로 38) 266-4150
양산지점 (북구 양산로 55) 573-4150
운암지점 (북구 북문대로 89) 528-4150
동림지점 (북구 북문대로 239) 513-4150
매곡지점 (북구 설죽로 315번길1) 572-4150
첨단지점 (북구 첨단연신로 91번길 20-4) 576-4150
동광주지점 (북구 동문대로 187) 264-4150
각화지점 (북구 동문대로 263, 2층) 263-4150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신협중앙회 심의필 제2021-15호(2021.7.6.) 유효기간 2021.12.31.까지